

판본별 티베트대장경에서의 삼장명에 대한 고찰* 1)

최 종남(고려대장경연구소 연구원)

I. 서 언

불교의 三藏(경·율·론)은 원전어(1차 자료)인 팔리어와 산스크리트어, 번역언어(2차 자료)인 한문, 티베트어 그리고 한역을 번역한 한글 및 일본어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불교의 전래와 함께 이들의 언어로 국가별·시대별에 의해 역경·연구되어 산스크리트어 경·론서를 제외한 팔리어, 티베트어 그리고 한역 대장경의 이름으로 각각 판각·출판되었다. 티베트대장경과 한역대장경은 대부분 각 시대의 왕의 명령과 불교계 승·속인의 필요에 의해 수 차례에 걸쳐 판각·출판되었다.

이들을 언어별·판본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① 언어별 : 팔리어, 산스크리트어, 티베트어, 한문, 미얀마어, 몽고어, 한글, 일본어 등.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2-071-AS3506)

② 판본별 혹은 활자본 : 적사대장경, 건륭대장경, 영락북장, 간본대장경, 가홍대장경, 송장유진, 중화대장경, 불광대장경, 고려대장경, 대정신수대장경, 신찬대일본속장경, 만속장경, 대일본속장경, 불교대장경, 한글대장경, 남전대장경, 국역일체경, P.T.S, Myanmar Sixth Sangayana Edition, sNar-thañ 판, Co-ne판, Peking판, sDe-dge(동경대)판, sDe-dge(대만)판, IHa-sa판, sTog판, Nyingma판, Phu-drag판, Urga판 등. 이들의 언어별·판본별 대장경들은 불교학 연구에 중요한 자료들이다.

이들 중에서 먼저 초기경전(/원시경전)인 팔리대장경(Pali Text Society, 5부 니까야: 잡-, 장-, 중-, 증일-, 소부아함경)은 초기불교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장경이다. 아울러 소승·부파불교 및 대승불교는 초기불교(=아함경)를 근간으로 하여 성립하였다. 따라서 초기불교 뿐만 아니라 소승·부파와 대승불교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또한 팔리대장경이 필요하다.

티베트대장경은 크게 세가지면에서 중요한 자료이다. 첫째로는, 티베트어의 번역은 산스크리트어의 삼장을 번역하면서 의역, 첨가, 축역 등이 없이 통일된 용어에 의해 기계적 또는 축어적(逐語的)으로 역경되었다. 따라서 의역, 첨가, 축역, 오역, 판각시의 오류 등이 있는 한역대장경과는 다른 번역본이다. 둘째로는, 산스크리트어 원전이 다량 분실되어 현존하지 않다. 그리고 티베트대장경에 수록되어 있는 일부의 삼장이 한역대장경에는 수록이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원전이 분실된 삼장의 일부를 티베트대장경에서 찾아 연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티베트대장경은 원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로는, 티베트는 불교학 중에서 중관학(현교)과 밀교학을 중점적으로 연구한 나라이다. 그러므로 이들 학문에 대한 저술 및 주석서가 다량 출판되었다. 이들 문서들은 티베트대장경과 장외집(藏外集)에 수록되어 있다. 이와 같은 예들로 인하여 티베트대장경은 불교학연구에 중요한 자료로서 이용되고 있다.

한역대장경은 2차 자료로서 불교학 연구에 또한 중요한 자료이다. 한역대장경에는 산스크리트어 원전이 분실된 문서들의 일부분과 그리고 티베트대장경 중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은 일부분의 삼장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아함부는 티베트대장경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중국에서 새롭게 전개·발전된 선종학, 천태학, 정토학, 삼론학 등의 저술은 한역대장경에 만 수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한역대장경은 초기불교, 소승·부파불교, 대승불교 뿐 만 아니라 중국불교학을 연구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자료이다.

이와 같이 중요한 자료로서 제공되고 있는 언어·판본별 대장경들 중에서 티베트대장경의 판본별 내용을 서로 대조하여 보면, 삼장의 종류, 양¹⁾, 배열²⁾이 각각 다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특히 각 판본에 기록되어 있는 삼장명들이 서로 각각 다르게 상당량 기록이 되어 있다. 그 유형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 판본들의 삼장명 중에서 접미사 표기가 다른 부분.
- " 연성 표기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
- " 조사의 표기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
- " 명사의 성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
- " 단어 일부가 생략 또는 첨가되어 있는 부분.
- " 부정조사의 표기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
- " 산스크리트어 음사 표기가 서로 다른 부분.

1) 今枝 由郎, 「チベット大藏經の編集と開版」, 『岩波講座 東洋思想 第2巻 チベット佛教』, 岩波書店 1989, pp.335~336 참조.
 2) 『대곡목록』과 『동북목록』 참조.

- 판본들 중에서 삼장명이 축역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

- 목차 중에서 표기의 誤記가 있는 부분.

이와 같은 유형 등으로 삼장명이 각 판본별 티베트대장경에 있어서 상당 부분 다름을 알 수 있다.

본 논고에서는 이와 같은 삼장명에 대한 문제점들을 중점적으로 티베트대장경의 판본들 중에서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북경(Peking)판, 데르게(sDe-dge) 동경대판 그리고 데르게 대만판(양 데르게 판본은 동일본인)을 중심으로 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II. 티베트대장경에서의 삼장명에 대한 고찰

본 논고에서 연구·검토될 부분은 고려대장경에 수록되어 있는 1514개³⁾의 삼장 중에서 티베트어로 번역된 426개 삼장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426개의 삼장들은 티베트대장경의 「불설부」(bKah hgyur)와 「론소부」(bsT

-an hgyur)의 2부에 수록되어 있다.

이들 삼장은 티베트 번역본에 있어서 대승의 현교와 밀교의 경·율·론이다. 836년(혹은 824년 說)에 당시 번역된 혹은 번역 중에 있었던 경·율·론 삼장을 모아 dPal brtsegs, Kluḥi dbaṅ po,

3) 고려대장경에 수록되어 있는 분량 및 전적의 종류에 대해서는 분류하는 관점과 방식의 차이에 의해 일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전적의 종류 또한 1512, 1514, 1516 혹은 1527종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본 논고에서는 최근 고려대장경연구소에서 고려대장경 번호 및 위치 정보 조사(大正藏本과 대조에 의해)를 한 목록집(미발표 자료)을 근거로 하여 1514종으로 표기함. 정 승석 편저, 『고려대장경해제』 제4권, 고려대장경연구소, 1998, p.10 참조.

Nāgendrakṣita, Nam mkaḥi sñiṅ pa 등에 의해 레파첸왕의 궁전인 Pho brang lDan(/lHan) dkar에서 편찬된 『덴카르마 목록』(lDen kar ma, 원명: 「Pho brañ stod thañ ldan dkar gyi bkaḥ dañ bstan bcos ḥgyur ro cog gi dkar chag」, P.No.5851 = D.No.4364)에서도 볼 수 있듯이 팔리 니까야와 한역 아함경에 상응하는 경전은 없다.⁴⁾

티베트 불교는 대승경전을 중심으로 한 불교·학이다. 따라서 426개의 삼장들 중에서 또한 아함부의 경전들은 없다. 426개의 삼장명들 중에서 약 70여 개의 티베트어 삼장명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판본별로 서로 다른 유형의 경·론명을 표기하고 있다.

이들 중에서 많은 부분은 산스크리트어 원전이 현존하지 않은 밀교 경·론명들, 티베트의 역경승들이 삼장명들을 원전명과 조금씩 다르게 각 경·론의 내용에 의해 표기한 경·론명들 그리고 신앙심에 의해(예 : “ḥphags pa”, “ᄎᄎ” 단어 첨가) 표기한 경·론명들이다.

이들의 대부분은 원전의 결여로 인하여 확인·대조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삼장명에 대한 완전한 교정·복원·환원 또한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나 본 논고에서는 관련 문헌과 경·론의 내용을 대조하여 원전명에 가깝게 교정하고자 한다.

음절의 구성 표기는 다음과 같다.

앞자(=전접자, 첨전자), 기본자(=기자), 뒷자(=유두자, 첨두자), 아랫자(=유족자, 첨족자), 윗모음, 아랫모음, 뒷자(=후접자, 첨후자), 끝자(=재후접자, 재첨후자).

4) 芳村 修基, 『インド大乘佛教思想研究』, 百華苑, 1974, pp.99~199; 御牧 克己, 「チベットの語佛典概観」, 『チベットの言語と文化』, 冬樹社, 1987, 註 9) 참조

약어 표

DT. : 티베트대장경 데르게(sDe-dge) 대만판

DU. : 티베트대장경 데르게 동경대판

K. : 고려대장경

P. : 티베트대장경 북경(Peking)판

T. : 大正藏經

T.S.사전 : Lokesh Candra, 「Tibetan-Sanskrit Dictionary」, 1959.

『논서편』:塚本啓祥 編著, 『梵語佛典の研究』III 「論書篇」, 平樂社,

1990.

『밀교편』:塚本啓祥 編著, 『梵語佛典の研究』IV 「密教經典篇」, 平

樂社, 1989.

『대곡목록』:大谷大學 監修, 『影印 北京版 西藏大藏經 總目錄·索

引』, 1985.

『동북목록』:東北帝國大學法文學部編, 『西藏大藏經 總目錄』, 1934.

산경명 : 산스크리트어 經名

한경명 : 한역경명

1. 판본별 삼장명 중에서 접미사 pa와 ba의 표기가 다른 부분(뒷 부분의 예

가 誤記임).

㉔ 뒷자 la의 경우 접미사 ba가 아닌 pa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

㉔ a K.0075(07-1161)

한경명: 『自在王菩薩經』

DU.167(Ba175b1), DT.167(Ba350, 1) : ḥphags pa nram
par ḥphrul baḥi rgyal pos shus pa ...

P.834(Phu185b7) : ḥphags pa nram par ḥphrul paḥi
rgyal pos shus pa ...

㉔ b K.529(14-030)

한경명: 『佛藏經』

DU.220(Dsa1b1), DT.(220(Dza2) : saṅs rgyas kyi sde
tshul khriṃs ḥchal ba tshar gcod pa ...

P.886(Tshul1) : saṅs rgyas kyi sde tshul khriṃs ḥchal
pa tshar gcod pa ...

㉔ ㉕ 뒷자 ṅa의 경우 접미사 pa가 아닌 ba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

㉔ a K.0268(11-0595)

한경명: 『了本生死經』

DU.210(Tsha116b2), DT.210(Tsha231, 1) : ḥphags pa sā
luḥi ljaṅ pa shes bya ba ...

P.876(Tsu122b8) : ḥphags pa sā luḥi ljaṅ ba shes bya
ba ...

2. 판본별 삼장명 중에서 인용조사(ces, shes, ses)와 뒷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

㉠ 뒷자 na의 경우 shes가 아닌 ces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

㉡ K.0067(07-0925), K.0068(07-0949), K.0069(07-0956)⁵⁾

한경명: 『般舟三昧經』, 『佛說般舟三昧經』, 『拔破菩薩經』

DU.133(Na1b1), DT.133(Na2)⁶⁾ : ḥphags pa da ltar gyi sañs rgyas mñon sum du bshugs paḥi tiñ ñe ḥdsin shes bya ba ...

P.801(Du1) : ḥphags pa da ltar gyi sañs rgyas mñon sum du bshugs paḥi tiñ ñe ḥdsin ces bya ba ...

㉢ K.0109(09-0471)

한경명: 『四童子三昧經』

DU.136(Na144b2), DT.136(Na288, 2) : ḥphags pa khyeḥu bshiḥi tiñ ñe ḥdsin shes bya ba ...

P.804(Du152a7) : ḥphags pa khyeḥu bshiḥi tiñ ñe ḥdsin ces bya ba

㉣ K.0133(10-0077), K.0134(10-0147)

한경명: 『佛說寶雨經』, 『寶雲經』

DU.231(Wa1b1), DT.231(Wa2) : ḥphags pa dkon mchog

5) 고려대장경의 번호가 나열된 경우는 이역본을 의미함.

6) DT.판본의 실제 내용(DT.133(Na2, 2)) 중에서는 “...ḥdsin ces...”로 기록하고 있다.

sprin shes bya ba ...

P.879(Dsu1) : ḥphags pa dkon mchog sprin ces bya ba

...

㉔ K.0140(10-0329), K.0141(10-0355)

한경명: 『等集衆德三昧經』, 『集一切福德三昧經』

DU.134(Na70b2), DT.134(Na140, 2)⁷⁾ : ḥphags pa bsod
nams thams cad bsodus paḥi tiñ ne ḥdsin shes bya
ba ...

P.802(Du73a5) :ḥphags pa bsod nams thams cad bsodus
paḥi tiñ ne

ḥdsin ces bya ba ...

그 외, 뒷자 na의 경우 shes를 ces로 잘못 표기한 경명이다.
下記の 경명 또한 P.판본만이 잘못된 표기들이다(고려대장
경 번호와 판본별 티베트대장경의 번호 및 위치 표기만 함).

① K.038(12-0295)

DU.132(Da253b5), DT132(Da506, 5) ≠ P.800(Thu276a4)

② K.0140(10-0329), K.0141(10-0355)

DU.134(Na70b2), DT.134(Na140, 2) ≠ P.802(Du73a5)

③ K.0172(10-1227), K.0173(10-1237)

DU.131(Da230b4), DT.131(Da460, 4) ≠ P.799(Thu250b2)

④ K.0188(11-015), K.0189(11-0169)

7) DT.판본의 실제 내용(DT.134(Na140, 1)) 중에서는 “...ḥdsin ces...”로 기록하고 있다.

DU.100(Ga276a1), DT.100(Ga551, 1) ≠ P.768(Khu301b6)

⑤ K.0376(12-0252)

DU.130(Da210b3), DT.130(Da.420, 3) ≠
P.798(Thu228a3)

⑥ K.1094(33-0801), K.11255(33-1040), K.1295(36-0921)

DU.662(Ba186a5), DU.1007(Wam172b4),
DT.659(Ba371,5), DT.1010

(Wam344, 4) ≠ P.341(Ba212a6)

⑦ K.1450(40-0506)

DU.130(Da210b3), DT.130(Da420, 3) ≠ P.798(Thu228a3)

⑧ K.1476(40-0890)

DU.231(Wa1b1), DT.231(Wa2) ≠ P.897(Dsu1)

⑨ K.1489(41-0588)

DU.100(Ga276a1), DT.100551, 1) ≠ P.768(Khu3011b6)

㊦ 뒷자 na의 경우 shes가 아닌 ces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

㉑ K.0482(13-1286)

한경명: 『寂照神變三摩地經』

DU.129(Da174b4), DT.(Da348, 4) :ḥphags pa rab tu shi
ba mnam par nes paḥi cho ḥprul gyi tiñ ne ḥdsin shes
bya ba ...

P.797(Thu189b5) :ḥphags pa rab tu shi ba mnam par nes

paḥi cho ḥprul gyi tiñ ne ḥdsin ces bya ba ...

㉔ 뒷자 la의 경우 shes가 아닌 ces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

㉔ K.0184(11-0107)

한경명 : 『佛說無希望經』

DU.207(Tsha95a7), DT.207(Tsha189, 7) : glañ poḥi rtsal
shes bya ba...

P.873(Tsu99b8) : glañ poḥi rtsal ces bya ba ...

㉕ 끝자 sa의 경우 ses가 아닌 shes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

㉕ K.0078(07-1221)

한경명 : 『寶星陀羅尼經』

P.806(Du201b3) : ḥphags pa ḥdus pa chen po rin po che
tog gi gzuñs ses bya ba ...

DU.138(Na187b3), DT.138(Na374, 3) : ḥphags pa ḥdus
pa chen po rin po che tog gi gzuñs shes bya ba ...

㉖ K.1095(33-0805)

한경명 : 『大方廣惣指寶光明經』

P.472(ḥa3b3) : ḥphags pa dkon mchog ta la laḥi gzuñs
ses bya ba ...

DU.145(Pa34a4), DU.847(E3b6), DT.145(Pa67, 4),
DT.850(E6, 6) : ḥphags pa dkon mchog ta la laḥi
gzuñs shes bya ba ...

3. 판본별 삼장명 중에서 조사의 표기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

㉔ K.0202(11-0241), K.0203(11-0249)

한경명 : 『第一義法勝經』, 『大威燈光仙人問疑經』

산경명 : 「Paramāthadharmavijaya Sūtra」

DT.246(Za74, 4) : ḥphags pa don dam paḥi chos kyis
rnam par rgyal ba shes bya ba theg pa chen poḥi
mdo

P.912(Shu35a3), DU.246(Shu35a3), DT.246(Za65, 1)
:ḥphags pa don dam paḥi chos kyi rnam par rgyal ba
shes bya ba theg pa chen poḥi mdo

산스크리트어 경명에서 복합어인. dharmavijaya를 P.판본 목록
(『대곡목록』)에서는 속격 조사 kyī(~의)를 사용하여 “...法の
勝(/法勝)...”으로, DU. 와 P.판본의 대장경 실제 내용 중에서는
구격 조사 kyis(~에 의한)를 사용하여 “...法에 의한 勝...”으로
그리고 DT.판본의 대장경 실제 내용 중의 경 서문(Za65, 1)에서
는 구격 조사 kyis로, 경 끝 부분에서는 속격 조사 kyī
(DT.246, (Za74, 4) :bcom ldan ḥdas kyis gsuñs pa la mdom
par bstod do// ḥphags pa don dam paḥi chos kyī rnam par
rgyal ba shes bya ba theg pa chen poḥi mdo rdsogs so//)⁸⁾
로 각각 다르게 조사를 사용하여 복합어를 번역·표기하고 있다.

본 경전(『第一義法勝經』)에서는 외도의 선인 光明炬가 부처
님의 법문을 듣고 불법의 수승함에 이끌려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증득하기 위하여 정진하게 되는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다.

8) =大正藏 17, 883下9~10 : ...聞佛所說歡喜讚歎. 第一義法勝經.

이와 같은 내용에 의하면 위의 두 가지 유형의 경명들에 있어서 조사 사용은 다르지만 경명의 의미는 경의 내용과는 다르지 않다.

그러나 위의 경명 중에서 dharma-는 소유격 Gen.의 의미를 갖고 있고, -vijaya는 소유격의 의미를 가진 dharma-에 의해 한정된 명사이다. 따라서 dharmavijaya는 격한정복합어 (Tatpuruṣa)로서 “...法の勝(/法勝)...”이 더 적합하다.

㊦ K.0236(11-0485), K.0237(11-0489)

한경명 : 『甚希有經』, 『佛說未曾有經』

산경명 : 「Adbhutadharmaparyāya Sūtra」

DU.319(Sa194a1), DT.319(Sa387, 1) : ḥphags pa rmad du byuñ ba shes bya baḥi chos kyi rnam grañs

P.985(śu203a6) : ḥphags pa rmad du byuñ ba shes bya ba chos kyi rnam grañs

티베트어역 삼장명 중에서 많은 경명들이 첫 부분에는 “ḥphags pa”(聖, ārya)라는 표기를 그리고 끝 부분에는 “...ces(/shes, śes) bya ba...(。 nāma, 名)” 아니면 “...ces bya ba”라는 표기를 첨가하고 있다. 이 단어들은 티베트 역경자들에 의해 하나의 정형 구조로서 첨가된 것들이다.

이들 중 “...ces(/shes, śes) bya ba...”라는 명사는 두 가지 형태로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 “...ces(/shes, śes) bya ba...” 명사는 뒤에 다른 명사가 위치할 경우에 속격의 형태(...baḥi)로 그리고 “...ces (/shes, śes) bya ba” 명사는 뒤에 명사가 없을 경우에 접미사 ...ba로 표기하고 있다.

위의 산스크리트어 경명 「Adbhutadharmaparyāya Sūtra」를 P.판본에서는 “[聖] 希有[라고 이름하는] 法門”으로, DU. 와

DT.판본에서는 “[聖] 希有[라고 이름하는 것의] 법문”으로 각각 번역하고 있다. 이 번역명을 산스크리트어로 환원하면 목록에서와 같이⁹⁾ 「Āryādbhuta-

dharmaparyāyanāma Sūtra」이다. 이 경명에서도 다른 티베트어역 경명과 같이 ārya^o(=hphagspa...)와 nāma(=shes bya ba...)가 첨가되어 있다. 위의 두 티베트어역 경명은 의미상 문제는 없다. 그러나 다른 티베트어 경명과 대조하면¹⁰⁾ DU와 DT.판본의 경명이 더 적합하다.

㊦ K.0427(13-0863)

한경명 : 『大毘盧遮那成佛神變加持經』

산경명 : 『Mahāvairocanābhisambodhivikurvitādhiṣṭānavaipulya Sūtra』

DU.494(Tha151b2), DT.492(Tha304, 2) :rnam par snañ mdsad chen po mñon par rdsogs par byañ chub pa mnam par sprul pa byin gyis rlob pa śin tu rgyas pa mdo sdeñi dbañ poñi rgyal po shes bya bañi chos kyi rnam grañs

P.126(Tha115b2~3) :rnam par snañ mdsad chen po mñon par rdsogs par byañ chub pa mnam par sprul pa byin gyis rlob pa śin tu rgyas pa mdo sdeñi dbañ po rgyal po shes bya bañi chos kyi rnam grañs

DU.와 DT.판본에서는 “...自在(/帝釋)의 王...”으로, P.판본에서는 “...自在王...”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 경명에서의 두 단어는 동격의 형태가 아닌 능의와 소의의 관계로서 속격 조사에 의해 구성

9) 『동북목록』 No.319 참조.

10) 예) 『밀교편』 p.90 : hphags pa be con chen po shes bya bañi gzuñs, 『논서편』 p.165 : śes rab brgya pa shes bya bañi rab tu byed pa 등.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경명은 “...dbañ poñi rgyal po...”가 적합하다.¹¹⁾

㉔ K.0578(16-0401)

한경명 : 『般若燈論釋』

산경명 : 『Prajñāpradīpamūlamadhyamakavṛtti』

P.판본 『대곡목록』, p.622 :dbu ma rtsa bañi ḥgrel pa śes rab sgron

ma

P.5253(Tsha53b3~4) :dbu mañi rtsa bañi ḥgrel pa śes pa sgron ma

DU.3853(Tsha45b4), DT.3858(Tsha90, 4) :dbu mañi rtsa bañi ḥgrel pa śes rab sgron ma

산스크리트어。mūlamadhyamaka°(“...根本中觀...”)를 “...dbu ma rtsa bañi...”와 “...dbu mañi rtsa bañi...”로 번역하고 있다. 이들을 한글로 번역하면 앞 부분은 “...根本中觀의...”로, 뒷 부분은 “...중관의 근본의...”로 번역이 된다.

“...dbu ma rtsa bañi...”에서는 rtsa ba(根本)를 형용사로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dbu mañi rtsa bañi...”에서는 rtsa ba를 속격 조사에 의해 명사로 번역하고 있다.

위의 두 론명 중에서。mūlamadhyamaka°는 『根本中論註無畏論』(Dbu ma rtsa bañi ḥgrel pa ga las ḥjigs med (DU.3829(Tsa29b1)), mūla=madhyamakavṛtti-akutobhayā) 등에서와 같이 rtsa ba

11) 『밀교편』 p.180 참조.

를 형용사로서 「dbu ma rtsa baḥi ḥgrel pa śes rab sgron ma」로 번역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논서편』(p.224)과 T.S.사전(p.1704)에서는 DU.와 DT.판본과 같이 표기하고 있다.

위의 론명 중에서 P.판본에는 Prajñāpradīpa°(般若燈)에 상응한 번역 용어로서 "...śes pa sgron ma"로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 단어는 잘못된 표기로서 "rab"이 생략되어 있다.

4.판본별 삼장명 중에서 명사의 성이 서로 다르게 표기되어 있는 부분.

㉞ K.0311(11-1237)

한경명 : 『佛說摩利支天陀羅尼呪經』

산경명 : 「Māricīnāmadhāraṇī」

P.182(Pha160a4) :ḥphags ma ḥod zer can ches bya baḥi gzuṅs

DU.564(Pha156b1), DU.988(Wam142a1), DT.561(Pha311, 1), DT.991

(Wam283, 1) :ḥphags pa ḥod zer can ches bya baḥi gzuṅs

P.판본의 목록 및 경전 실제 내용에서의 경명 그리고 DU.·DT.판본의 실제 내용 중에서의 경명은 산스크리트어 경명 Māricī(摩利支)의 명사 성(여성형)과 경전의 내용(...lha mo ḥphags ma ḥod zer can...¹²⁾, 摩利支女神,=Māricī-devī)에 의해“ḥphags ma ḥod zer can...”(聖女摩利支...)으로 경명을 표기하고 있다.

12) DT.561(Pha313, 1).

그러나 DU.¹³⁾와 DT.¹⁴⁾판본의 목록에서만은 남성형인“聖摩利支...”로 표기를 하고 있다.¹⁵⁾

경전의 실제 내용과 산스크리트어 경명에 의하면 DU.와 DT.판본의 목록에 표기되어 있는 경명은 誤記이다.

⊕ K.1108(33-0911)

한경명 : 『佛說最上燈明如來陀羅尼呪經』

산경명 : 「Agrapradīpadhāraṇīvidyārāja」

DU.528(Na85b1), DU.858(E79b5), DT.525(Na136, 1),
DT.861(E158, 5) :ḥphags pa rigs snags kyi rgyal po
sgron ma mchog gi gzuṅs

P.195(Pha215a1) :ḥphags pa rigs snags kyi rgyal mo
sgron ma mchog

-gi gzuṅs

산스크리트어 경명은 「Agrapradīpadhāraṇīvidyārāja」(“最上燈明如來陀羅尼”)이다. 이 경명 중에서 。rāja(=如來, 王)를 DU.와 DT.판본에서는 남성명사 의미로서 rgyal pa(=如來, 王)로, P.판본에서는 여성명사의 의미로서 rgyalmo(=佛母, 女王)로 번역하고 있다.

同 경전의 내용과 산스크리트어 경명에 의하면 티베트어역 경명은. rājā에 상응한 여성형이 아닌 남성형이 적합하다.

13) 『동북목록』 p.99.

14) DT. Vol.XVIII, 목차 vi.

15) 한역에는 性에 관한 표기는 없다.

5. 판본별 삼장명 중에서 일부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 부분.

㉞ K.525(14-0244)

한경명 : 『佛說淨業障經』

산경명 : 『Karmāvaraṇavisuddhi Sūtra』

P.884(Tsu298a5) :ḥphags pa las kyi sgrib pa rnam par
dag pa shes bya ba theg pa chen poḥi mdo

DU.218(Tsha284a3), DT.218(Tsha567, 3) :ḥphags pa sgrib
pa rnam par dag pa shes bya ba theg pa chen poḥi
mdo

DU.와 DT.판본에서는 산스크리트어 경명의 karma°(“業”)에 상
응하는 단어로서 “...las kyi...”(“業의...”)가 생략되어 있다.

P.판본에는 “聖業障清淨이라고 이름하는 大乘經”으로, DU.와
DT.판본에는 “聖障清淨이라고 이름하는 大乘經”으로 표기하고
있다.

㉟ K.0586(16-0843)

한경명 : 『大乘莊嚴經論』

산경명 : 『Mahāyānasūtrālaṅkāra』

DU.4020(Phi1b1), DT.4025(Phi2) :theg pa chen po mdo
sdeḥi rgyan

shes bya baḥi tshig leḥur byas pa

P.5521(Phi1) :theg pa chen poḥi mdo sdeḥi rgyan gyi
tshig leḥur byas

pa

이 문서는 「Mdo sdeḥi rgyan gyi bśad pa」(『대승장엄경론』, P.5527(Phi135b7), DU.4026(Phi129b1)) 중에서 頌부분만을 별도로 모은 텍스트이다.¹⁶⁾

DU와 DT.판본에는 “大乘經部の 莊嚴이라고 이름하는 것의 頌”으로, P.판본에는 “大乘經部の 莊嚴의 頌”으로 표기하고 있다. DU와 DT.판본의 티베트어 표기를 산스크리트어로 환원하면 「Mahāyānasūtrā-

aṃkāranāmakārikā」가 된다.¹⁷⁾ P.판본에서는 산스크리트어 。 nāma에 상응하는 ...shes bya ba...가 생략되어 있다.¹⁸⁾

㊤ K.0599(17-351)

한경명 : 『辯中邊論頌』

산경명 : 「Madhyāntavibhāgakārikā」

DU.4021(Phi40b1), DT.4026(Phi79) : dbus dañ mthaḥ rnam par ḥbyed

paḥi tshig leḥur byas pa

P.5522(Phi43b4) : dbus dañ mthaḥ rnam par ḥbyed pa

P.판본에는 산스크리트어 경명 중에서 。 kārikā에 상응한 ...tshig leḥur byas pa가 생략되어 있다.

16) 袴谷 憲昭·荒井 裕明 校註, 『大乘莊嚴經論』 瑜伽·唯識部 12, 大藏出版 1998, p.11 참조.

17) 『동북목록』 No.4020 참조.

18) 袴谷 憲昭·荒井 裕明 校註, 앞의 책, p.11; 武內 紹晃 編集, 『梵文大乘莊嚴經論寫本』, 法藏館, 1995, pp.2~3 참조.

6. 판본별 삼장명 중에서 일부 단어가 첨가된 부분.

㉔ K.1122(33-1012)

한경명 : 『聖觀自在菩薩一百八名經』

산경명 : 없음

P.381(Tsa43a6) :ḥphags pa spyan ras gzigs dbaṅ phyug
gi mtshan

brgya rtsa brgyad pa

P.525(Ha214a8), DU.706(Tsa173a6), DT.701(Ma345, 6)
:ḥphags pa

spyan ras gzigs dbaṅ phyug gi mtshan brgya rtsa brgyad
pa shes bya

ba

P.381에서는 “聖觀自在百八名”으로, P.525, DU.706 그리고
DT.701에는 “聖觀自在百八名이라고 이름하는”으로 표기되어 있
다.

위 경전은 산스크리트어 원전 또는 원전명이 없어 정확한 티베트어
역 경명을 추측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밀교편』(p.131)에서 위의
3가지 티베트대장경 판본 외에 sNar-thaṅ, Co-ne, lHa-sa 그리고
sTog 판본 등을 대조한 경명에 의하면 ...shes bya ba는 첨가한 부
분으로 기록하고 있다.¹⁹⁾

19) 『밀교편』 p.131 참조.

7. 판본별 삼장명 중에서 론명이 축역되어 있는 부분.

㉞ K.1478(41-0015)

한경명 : 『聖佛母般若波羅蜜多九頌精義論』

산경명 : 『Bhagavatiprajñāpāramitānavasīlokapiṇḍārtha』

P.5212(Ma3b4), DU.3812(Ma1b1), DT.3817(Ma2) :bcom
ldan ḥdas ma śes rab kyi pha rol tu phyin paḥi don
bsdus paḥi tshigs su bcad pa dgu pa

P.5906(Po347b2), DU.4462(Po314a4), DT.4469(Po627, 4)
:tshigs su

bcad pa dgu pa

P.5212, DU.3812 그리고 DT.3817에서는“佛母般若波羅蜜多攝
義九頌”으로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P.5906, DU.4462 그리고
DT.4469에서는 론명을 축역하여“九頌”으로만 표기하고 있다.

8. 판본별 삼장명 중에서 부정조사 표기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

㉞ K.0138(10-0309)

한경명 : 『不必定入定入印經』

산경명 : 『Niyatāniyatagatimudrāvatāra Sūtra』

DU.202(Tsu66a7), DT.202(Tsha125, 5) :ḥphags pa ḥes pa
daḥ ma ḥes

par ḥgro baḥi phyag rgya la ḥjug pa shes bya ba theg pa
chen poḥi

mdo

P.868(Tsu66a7) :ḥphags pa ḥnes pa daḥ mi ḥnes par ḥgro
baḥi phyag

rgya la ḥjug pa shes bya ba theg pa chen poḥi mdo

티베트어에 있어서 부정조사의 경우 ma는 현재어간, 미래어간,
동사적 형용사 앞에 위치하고 그리고 mi는 과거·완료어간, 명령
어간, 명사화한 동사 앞에 위치한다.²⁰⁾

위의 티베트어역 경명 중에서 ḥphags pa ḥnes pa daḥ ma ḥnes
par ḥgro ba...(=niyatāniyatagati°)의 의미는 “聖 決定과 未決
定으로 가는...”이다. 이 내용 중에서 ma ḥnes par ḥgro ba...(“未
決定으로 가는...”)는 미래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경명 중에서 부정조사는 ma가 적합하다.²¹⁾

9. 판본별 삼장명 중에서 산스크리트어 음사 표기가 서로 다른 부분.

㉠ K.0223(11-0423), K.0224(11-0429), K.0225(11-0435)

한경명 : 『伽耶山頂經』, 『聖伽耶山頂大乘經』, 『佛說象頭
精舍經』

산경명 : 「Gayāśīrṣa Sūtra」

20) Michael Hahn, “Lehrbuch der klassischen tibetischen Schriftsprache”, Bonn,
1985, p.75 참조.

21) 横山 纘一·廣澤 隆之 共著, 『瑜伽師地論 梵藏漢對照·藏梵漢對照 佛教語辭
典』, 山喜房佛書林, 1997, p.686a 참조.

DU.109(Ca285a1), DT.109(Ca569, 1) :ḥphags pa ga ya
mgoḥi ri shes

bya ba theg chen poḥi mdo

P.777(ḥnu313b1) :ḥphags pa ga ya mgoḥi ri shes bya ba
theg chen poḥi

mdo

티베트어역 경명에서는 산스크리트어 경명 중에서 “gayā”(“伽耶”)를 음사 표기하고 있다. DU.와 DT.판본에서는 “yā”에 대한 음사 표기로서 ā(장음)로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P.판본에서는 a(단음)로 표기하고 있다.

㊦ K.1175(34-0170)

한경명 : 『撻稚梵讚』

산경명 : 「Gaṇḍistotragāthā」

DU.1149(Ka210b1), DT.(1152(Ka355, 1) :gaṇḍiḥi bstod pa
tshigs su

bcad pa

P.2040(Ka210b2) :gaṇḍiḥi bstod pa tshigs su bcad pa

티베트어역 경명에서는 산스크리트어 경명 중에서 “gaṇḍī”(“撻稚”)를 음사로 표기하고 있다. DU.와 DT.판본에서는 “ḍī” 중에서 i를 산스크리트 어 경명에서와 같이 장음으로 음사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P.판본에서는 i를 단음으로 표기하고 있다.

10. 목차 중에서 표기의 誤記가 있는 부분.

㉞ K.1105(33-0896)

한경명 : 『佛說較量壽命經』

산경명 : 「Āyusṣaryanta Sūtra」

P.973(śu149a3), DU.307(Sa139a4), DT.307(Sa277, 4) :tsheḥi
mthaḥi

mdo

DT. Vol.XV, 목차 III :choḥi mthaḥi mdo

산스크리트어 경명 중에서 ayuṣ°(“壽”)는 티베트어로서는 P.,
DU. 그리고 DT.판본의 실제 내용에서와 같이 tsheḥi(“壽命”,
“壽”)를 의미한다.

그러나 D.T.판본의 자체 목차 중에서는 ayuṣ°를 choḥi로 표기하
고 있다. 이 단어는 티베트어에는 없는 단어로서 tsheḥi를 로마나
이즈하는 과정에서 choḥi로 잘못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D.T.
판본에서는 윗 모음 e와 tsha의 윗 부분 문자 「 ㅌ ㅍ 로 잘못 기
록하였다.

Ⅲ. 맺는 말

이상과 같이 본 논고에서는 고려대장경에 수록되어 있는 1514개의
삼장명들 중에서 티베트어로 번역되어 현재 티베트대장경 P., DU.
그리고 DT.판본의 「불설부」와 「논소부」에 수록되어 있는 426
개의 삼장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중 특히 70여 개의 삼장명들이 각 판본별로 서로 다른 형태의 경·론명들로 기록하고 있어 이들을 중심으로 하여 고찰하였다.

이들 삼장명 중에서 표기의 불일치 유형은 9가지(목차 내용 제외)로 구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을 분석하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서 판각 과정(접미사 pa와 ba의 예(II, 1))에서의 오류와 번역과정(II. 2에서 9까지)에서의 오류로 분류 할 수 있다.

그리고 북경 판본(P.)과 데르게 판본(DU., DT.)들을 각각 대조하여 보면, 북경판본(불설부 : 1410년, 논소부 : 1724년)을 저본으로 한 데르게 판본(불설부 : 1733년, 논소부 : 1742년)²²⁾에서는 많은 삼장명을 교정하여 판각·영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티베트대장경에 수록되어 있는 많은 삼장명들이 판본별로 서로 다른 형태로 번역·표기하고 있다.

본 논고에서는 북경 판본과 데르게 판본을 중심으로 하여 약 5000여 전적 중에서²³⁾ 70여 전적만 고찰하였지만, 그러나 이 외의 판본들과도 대조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많은 관련학자들이 각 판본에 번역·표기되어 있는 삼장명들을 지적 혹은 교정 없이 인용하고 있다. 따라서 티베트대장경의 각 판본별로 경전에서의 실제 삼장명, 목차에서의 삼장명 그리고 각 목록에서의 삼장명들을 서로 대조·확인하여 교정하는 전체적인 삼장 목록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주제어

22) 今枝 由郎, 앞의 책, p.335 참조.

23) 今枝 由郎, 앞의 책, pp.335~338 참조.

고려대장경(Goryeo dae jang gyeong), 데르게 판본(sDe-dge Edition), 북경 판본(Peking Edition), 산스크리트어 경명(Sanskrit Title), 티베트대장경(Tibetan Buddhist Canon), 티베트어 경명(Tibetan Title), 한역 경명(Chinese Title).

A Study on the Names of Tibetan Tripitakas by Xylographic edition

Choi, Jong-nam

Tripitakas (Sūtra, Vinaya, Abhidharma) in Buddhism were recorded in Sanskrit and Pāli, which were the original languages, in Tibetan and Chinese, which were translated language, and in Korean and Japanese translated from Chinese versions.

With the transmission of Buddhism, Tripitakas were translated and studied into these languages in different kingdoms throughout the history, and were engraved and published in Pāli, Tibetan and Chinese except Sanskrit. Tibetan Tripitakas and Chinese Tripitakas were mostly engraved and published several times in each age by the king's command or at need of Buddhist priests or believers.

Among Tripitakas by language and xylographic edition, Tibetan Tripitakas are different between xylographic edition in the kind, volume and arrangement of Tripitakas. In particular, the names of Tripitakas recorded in xylographic editio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one another.

Their types are as follows.

The names of Tripitakas are different from one another in the notation of suffix, the notation of long syllables, the notation of

particles, the gender of nouns, the notation of indefinite particles, etc. In addition, there are omission or addition of a part of words, different notation of the borrowed spelling Sanskrit, abbreviated names of Tripitakas in some xylographic edition, errors in notations in some, etc. All these show that the names of Tripitaka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different xylographic edition of Tibetan Tripitakas.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se problems in the names of Tripitakas centering on Peking Edition(P.), sDe-dge Edition(DU., DT.), which are most commonly utilized among Tibetan Tripitakas.

This research studied 426 Tripitakas translated into Tibetan out of 1514 Tripitakas found in Koreana Tripitakas.

The names of the 426 Tripitakas are listed in two parts of Tibetan Tripitakas, which are bKaḥ ḥgyur and bsTan ḥgyur.

Among the 426 names of Tripitakas, 70 Tibetan names indicate different types of Sūtra and Abhidharma names between xylographic edition.

For most of them, it is impossible to compare and verify them with the original versions. Accordingly, it is hardly possible to rectify and restore the names of Tripitakas to the perfect state. Nevertheless, this study corrected them close to the original versions by comparing relevant literature and the contents of Sūtras and Abhidharmas.

